

도시바, 160기가 용량 노트북 출시



도시바는 노트북 가운데 최대 용량인 160기가 하드디스크를 탑재한 코어2듀오 노트북 '새틀라이트 A100'을 출시했고 밝혔다. 또 12.1인치 올인원 서버급 노트북 '포테제 M500', 14인치 엔터테인먼트 노트북 '새틀라이트 M100'을 같이 선보였다.

도시바의 첫 코어2듀오 모델 '새틀라이트 A100'은 올해 도시바 모델 중 가장 인기를 끈 'A100'의 업그레이드 모델. 코어2듀오 프로세서에 국내 노트북 최대 용량인 160기가의 하드디스크를 장착했다.

160기가의 대용량 하드디스크는 일반 노트북보다 2배 이상 많은 용량을 지원해 데스크톱PC 환경에서나 가능했던 동영상 편집·저장, 3D게임 뿐 아니라 사진·MP3·영화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파일을 보관할 수 있다.

200니트 밝기를 자랑하는 '트루 브라이트' 기술에 '클리어 슈퍼뷰(CSV)' 액정으로 보다 선명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다.

함께 선보인 '포테제 M500'은 DVD 슈퍼멀티 드라이브를 장착한 올인원 제품임에도 무게가 1.86kg 밖에 나가지 않는다.

또 새틀라이트M100'은 14인치 와이드 노트북으로 '클리어 슈퍼뷰 액정'과 함께 하만카돈 스피커, 울트라 슬림 리모컨, 외장형 그래픽카드 등을 탑재했다

캐논, 유전자 진단사업 본격 진출

캐논이 유전자 진단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10월 31일 보도했다.

캐논은 최근 특정 유전자를 순식간에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데 이어 오는 2010년까지는 질병의 진단이나 약의 부작용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유전자 진단장치를 제품화할 계획이다.

이 회사의 미국 현지자회사인 '캐논US라이프사이언스'는 특정 유전자 뿐만 아니라 유전자 배열의 차이도 단시간에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지금까지 유전자 구별에는 2일에서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캐논은 2010년 유전자 진단 분야에서만 매출 1조엔을 목표로 하고 향후 기술 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키아, 차량항법장치 시장 진출



세계 최대 휴대폰업체인 노키아가 차량항법장치(카내비게이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노키아는 휴대폰 기능이 없는 순수 카내비게이션 제품인 '노키아 330'을 출시했다고 10월 30일 보도했다.

노키아 330은 차량항법기능과 함께 영화, 음악감상 등 PMP기능도 함께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키아는 이 제품을 대당 360유로에 유럽시장에 판매하기로 했다. 노키아는 최근 독일의 GPS전문업체 게이

트5를 인수하고 차량항법기능을 내장한 스마트폰 'N95'를 선보이는 등 카내비게이션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편 노키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의 카내비게이션 수요는 약 1500만대로 예측된다.

NTT도코모, 임신 적정날짜 알려주는 휴대폰 개발



NTT도코모가 여성들에게 임신하기에 적절한 날짜를 알려주는 신형 휴대폰을 선보였다고 10월 30일 보도했다.

여성이 자신의 휴대폰에 생리주기를 입력할 경우 배란일에 맞춰서 메시지가 날아오게 된다. 여성고객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 임신날짜정보는 문자 대신에 음성메시지로 알려 줄 수도 있다.

이같은 기능은 일본사회의 심각한 노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임신장려책의 하나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현재 일본가정의 평균 출산율은 1.25명에 불과해서 일본정부는 급격한 노령화와 인구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휴대폰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휴대폰 사용은 인구증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미국 생식의학회(ASRM)는 남자들이 한번에 장시간 휴대전화로 통화하면 정자의 숫자와 운동능력도 저하된다고 발표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들의 경우 휴대폰을 쓰지 않는 사람에 비해 정자의 운동능력이 무려 30%나 하락한다고 의사들은 경고했다.

대만 휴대폰, 2008년까지 세계시장 26% 차지할 것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대만산 단말기의 비중이 오는 2008년까지 26%로 늘어날 전망이다. 10월 29일 시장조사기관 ABI 리서치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ABI리서치는 대만의 휴대폰산업이 '제조 자설계생산(ODM)' 업체의 도약에 힘입어 2008년에 출하량 2억8100만대, 세계시장 점유율 26%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ODM 휴대폰업계에서 중저가 제품 중심의 생산량과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명함을 내밀고 있는 대만 업체로는 컴팔 커뮤니케이션, 위스트론 코프 등이 있다.

ABI리서치의 한 애널리스트는 "모토라·소니 에릭슨 등은 중저가 휴대폰 제조의 전초기지로 대만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 휴대폰 출하량에서 ODM 업체들의 비중도 2008년까지 79%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ABI리서치는 대만 ODM 업체들은 중국본토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어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기술면에서 중국업체들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캠코더 시장 HD급 모델이 잇따라 출시

일본 시장에서는 올 들어 소니, 캐논 등의 HD급 모델이 잇따라 등장해 히트를 기록, 최근 2년간 연간 150만대 전후의 캠코더 출하로 앞섰던 성장잠재력을 펼쳐버리기 시작했다. 10월 29일 보도했다.

소니와 마쓰시타전기산업은 공동으로 캠코더로 HD 영상을 기존 DVD 등에 기록할 수 있는 신규격 'AVCHD'를 만들었다. 이 규격은 고도의 데이터 압축기술을

사용해 다량의 정보를 포함한 HD 영상을 현행 DVD에도 장시간 녹화할 수 있다. 직경 8cm DVD의 경우 양면에 모두 40분의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다.

당초 테입 방식 HD급 기종을 발표한 소니는 지난 달 AVCHD 규격으로 첫 DVD 방식 캠코더를 발표했다. 이달에는 HDD 탑재형 제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단지 DVD에 녹화해도 AVCHD 규격을 지원하지 않는 기종의 경우 HD 영상을 재생하지는 못하는 게 단점이다.

신규격을 지원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전용 소프트웨어(SW)를 갖춘 컴퓨터나 내달 출시하는 '플레이스테이션(PS3)'으로 본격적인 보급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스리콤, 자체 브랜드로 무선 VoIP폰 출시



네트워크 장비업체 스리콤이 자체 브랜드로 무선 VoIP폰을 출시했다고 뉴스팩터가 10월 23일 보도했다.

새로 선보인 무선 VoIP폰 '3108'은 대학과 사무실, 카페 등의 와이파이(802.11b/g) 환경에서 작동

하고 SIP프로토콜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측은 의사와 간호사, 교사 공무원 등 와이파이 환경이 갖춰진 실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무선 VoIP폰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인도 SW업체 새티암, 2분기 순익 35% 증가

인도의 소프트웨어(SW) 업체 새티암

(Satyam)은 회계연도 2분기(7~9월) 순익이 전년동기 대비 35% 가량 증가했다고 10월 23일 보도했다.

새티암의 2분기 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한 32억루피(약 679억원)였고, 같은 기간 매출은 38.7% 증가한 160억루피(약 3397억원)였다.

새티암은 아웃소싱 붐의 여파로 고객수가 증가하면서 예상을 뛰어넘은 실적을 거뒀다.

중국 특허 신청 건수 10년전 대비 6배 증가

중국에서의 특허 신청 건수가 10년전에 비해 6배 이상 늘었다고 AP통신이 UN에 이천시 자료를 인용, 10월 15일 보도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및 외국인들이 신청한 특허는 총 13만건이며, 중국인이 신청한 특허는 6만5000건으로 1995년에 비해 6배나 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전체 신청건수에서 일본, 미국, 유럽특허청, 한국에 이어 5위로 뛰어올랐다. 또 중국에서 신청한 외국인 및 기업들의 숫자는 9년전에 비해 7배 이상 늘었다.

UN에이전시에 따르면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특허신청건수는 연평균 4.75%에 불과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계 최고의 특허신청국인 일본은 2004년 출원된 45만건 가운데 5분의 4가 일본인들이 신청한 것이다. 또 해외 사무소에서 일본인들이 특허를 신청한 건수는 13만7800건에 이르렀다.

한편 2004년 우리나라에서 신청된 특허건수는 1995년 대비 2배로 늘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